

마음이란 어디서 온 것인가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 내 마음은 나라의 존재가 탄생하는 동시에 생긴다. 아니, 유전법칙에 따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육체가 조성되기 시작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피가 돌고 뇌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DNA를 통해 유전되므로 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마음에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조상의 핏줄을 따라 올라가면 맨 처음 조상이 나온다. 마음은 그 첫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첫 조상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또한 생긴다. 첫 조상이 생기기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첫 조상에게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첫 조상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첫 조상 이전에 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거나 선가(禪家)에서 내려오는 화두(火頭),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리자 조희성 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끝 간 데 없는 기쁨과 희열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었다. 이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존재했으므로 영이며, 충성의 빛이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자 동시에 생명체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미귀가 하나님을 사로잡는 순간 사람으로 변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동식물과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승리자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본래모습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음양으로 변한 우주만물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일체중생살일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시편 82:6)이라고 하는 성경과 불경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마음은 핏속에 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피 한 방울로부터 시작했다. 정자와 난자 또한 피의 변형체다. 피는 육안으로 보이는 빨간 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호르몬, 효소, 림프액 등 모든 것이 피



에 속한다. 그 한 방울의 피에는 조상들의 유전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 유전정보가 뇌를 통하여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뇌세포에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세포는 마치 회로와 같은 것이며, 뇌세포를 통하여 피가 흐를 때에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핏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미국의 레슬리 다쿠치 박사는 "기억은 뇌에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퍼져 있는, 내장으로 뻗은 신경 경로와 더불어 우리의 피부에까지 퍼져 있는 연결망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폴 피어설 박사는 150명 정도의 장기이식 수술 환자를 면담했는데, 살아 있는 조직의 세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 외쪽에서 인용)고 말했는데, 장기가 조직의 세포 또한 피의 변형이므로 핏속에 기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들의 생각을 비롯하여 행한 것들이 핏속에 녹음이 된다고 말하는 조희성 님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이처럼 핏속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기억은 마음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마음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피와 연관시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성격이 꼼꼼하고, B형인 사람은 사교적이며 유순하고, O형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며, AB형의 사람은 번덕이 심한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피의 형태에 따라 각기 마음작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피의 작용이 곧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핏주머니인 심장에 마음 심(心)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일컬었

인을 닮게 된다.

말속에 들어 있는 심혈형신론(心血靈身論)

우리 말 속에 마음의 변화에 따른 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있다. 간이 콩만해졌다. 대담(大膽)하다. 비위(脾胃)가 상했다.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었다. 이러 표현들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서 장기나 기관이 변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심신의학

심신의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들에게도조차 생소한 학문이며, 설령 심신의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도 이 분야를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학문이다. 하지만 저 유명한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깊이 연구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니 심신의학의 활야버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심신의학은 프로이드, 아들러 등에 의해 그 기본개념은 이해되었지만 심신의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프란츠 알렉산더이다. 그러다가 존 사노 박사에게 와서 심신의학이 중요한 질병치유 사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신의학에 따르면 많은 병들이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해로운 감정현상의 무의식적인 방어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무의식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병이 낫거나 좋아진다.

이밖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도 마음과 피의 변화에 따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피와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마음이 변하면 피가 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영생의 피로 변하고, 반대로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는 피로 변한다는 승리자 조희성 님의 가르침은 과학적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학설이다.*

관상으로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우같이 생긴 사람은 여우처럼 행동을 하고, 족제비같이 생긴 사람은 족제비 같은 행동을 한다. 약하게 생긴 사람은 약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착하다. 이 뿐만 아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얼굴은 난폭한 형상이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갖게 된다. 마음에 의해 피가 변해서 그렇게 얼굴이 변한 것이다. 우리말에 "생긴 대로 노네."하는 말도 피의 변화가 생긴새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 주는 흔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부부가 닮는 이유

부부가 수십 년 같이 살다보면 서로 닮는 경우가 많이 본다. 얼굴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는 짓도 닮게 된다. 이것 또한 피의 변화로 인해 생김새가 변하는 근거이다. 여담으로 재밌는 사실이 있다. 자녀가 남편을 닮거나 부인을 닮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다. 부인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할 경우에는 태어난 자식이 남편을 닮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7>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

신이라는 것이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물이다 신이라는 것을 매시간마다 과학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피 자체가 마음이요, 피 자체가 영이요, 신이다. 그 피로써 살이 만들어지고 몸이 조성 되었으므로 사람의 몸이 영이요, 신이요, 영혼이다. 또 사람 몸만 신이 아니라 만

물이 다 신이라는 것을 매시간마다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세밀히 말씀드리고 있다. 만물이 다 신은 신인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고 죽어있는 것은 사망의 신이다. 만물 속에 빛과 어둠의 신, 생명과 사망의 신이 병존하고 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8> "우주를 움직이는 자"

만물이 신이라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신이다. 어떤 천문학자가 우주 속에는 지구에서 보이는 은하수와 같은 것이 17개나 있다고 깨나 아는 척하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사실은 우주 속에는 셀 수 없는 무량대수의 은하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하나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달이라는 별은

지구를 돌고 지구라는 별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지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돌아가고 있으므로 영원무궁토록 서로 부딪침이 없는 것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긴자가 되어 한국 땅에 서 있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뇌하수체

뒷머리와 뒷목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질하십니까? 이는 뇌하수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뇌하수체는 간뇌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으며, 연부홍색을 띤 완두콩만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 작용은 내분비선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모든 내분비선을 조절합니다. 뇌하수체는 전엽 · 중엽 · 후엽으로 나뉘어 저마다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가 어른의 모습을 갖게 되는 증상입니다. ⑤ 쿠싱 증후군: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자극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생기는 질환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보름달처럼 둥글게 살찐 얼굴과 가는 팔, 다리입니다. 또 핏속에 당 성분이 많아져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거인이 되고, 너무 적게 나오면 난쟁이가 됩니다. 또한 전엽에서는 다른 내분비선(갑상선 · 부신 피질 · 생식선)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⑥ 기타 팽팽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팽을 많이 흘립니다. 손목의 연골 조직이 과성장하여 수근터널 증후군이라는 손목이 아픈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뼈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시야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만 갑상선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또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난소를 자극해야만 여포 호르몬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황체 호르몬이 나와야 황체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의 원인은 뇌의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양, 물혹,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인의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원인은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이는 전체 원인의 70-80%를 차지하며, 종양 자체에 의해 발생하거나 종양을 치료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내분비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출산과 상관없이 유즙이 분비되는 것도 뇌하수체 기능 항진의 증상입니다. 이를 비롯한 뇌하수체 기능 항진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인증: 뇌하수체에서 과도하게 성장호르몬이 분비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사춘기 이전에 생깁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의 원인은 뇌의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양, 물혹,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인의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원인은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이는 전체 원인의 70-80%를 차지하며, 종양 자체에 의해 발생하거나 종양을 치료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분만 시 과다 출혈로 인해 쇼크에 빠질 경우 뇌하수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막염, 뇌염, 유행성 출혈열 등 매우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뇌하수체 기능 부전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결핍증의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원래의 질환과 많이 연관됩니다.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아주 빠른 시기에 모든 호르몬이 결핍됩니다. 뇌 방사선 조사로 인해 2차적으로 호르몬 결핍이 생긴 경우에는 이보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길게는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말단 비대증: 성인이 된 후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손끝, 발끝 등 신체의 말단 부위가 커지고 두꺼워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③ 유루증: 뇌하수체에서 유즙분비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출산 후가 아닌 데도 젖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 외에 무월경, 불임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 저하나 발기부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번 손상된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는 원인이 제거되더라도 호르몬 분비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평생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면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성조숙증: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어린이이

김주호 기자

6월은 보광의 달입니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십시오!

정도령 아면 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라!!!!